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스스로 당당하고 여여하게 퍼내서 쓸 수 있어야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문 은산철벽을 뚫으려면 어떤 장소를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부처님 경전에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용한 데를 찾아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정진해 나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답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살림살이 빼놓고, 우리를 빼놓고, 자식을 기르는 것 빼고, 사회를 빼놓고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 가지 천 가지 번뇌 망상이 다. 육십이견(六十二見)이 다 공한 까닭에 색이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실상이고요. 망상을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하는데 그 만 가지 망상이 나오는 대로,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불심을 키워 주는 바로 보리예요. 보리! 불심을 키워 줄 수 있는 보리! 그러니까 망상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망상이 없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없으면 목적이게요? 목적이 무슨 부처를 이룬다 까? 무슨 인간입니까? 그러니 그 망상도 소중하

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면 윤회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에도 매이지 말자.' 하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서 놓는다면 몇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깨닫는 데에 지름길이며, 또 업식을 다 무효화시키는 데 지름길이며,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지름길이며, 나를 건강하게 하는 데도 지름길이며, 모든 것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하십시오. 내가 열 마디 백 마디 해 봤자 여러분이 생각 한 번 잘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끌어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원이 같아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끌어 주려고 하는 마음과 동일해야만이 바로 한자리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림하면서든 어떠한,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시장바닥에 내놓고 공부를 할 때, 모든 일체 만법을 받아들이고 거기 놓을 수 있을 때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

그러니 사생이라 하면 알로 낳는 것 태로 낳는 것, 질척한 데서 낳는 것 화해서 낳는 것이 모두를 바로 한 찰나의 살림살이로서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은 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가 불러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대인이라는 행을 하고 그대로 멧멧한 거죠. 나는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남이 뭐라든, '아이구, 별것도 아니야. 뭐, 만나 보니까 똑 구구마갑이 생겼고 그 저 별것도 아니야. 키는 풍자루만하고.' 이래도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좋고 풍자루 같아도 좋아요. 왜냐. 풍자루같다는데, 뭐, 뭐 틀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기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꾸로만 보고 물질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적에 나를, 내가 참나를 알아서 이렇게 했을까. 저 사람도 내가 물렸을 때에 바로 내 모습일구나.' 이러니 그것도 미운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데 내 속이 상하는 거고, 남을 증오하는 데 내 업이 되는 거고, 남을 죽이는 데 나는 바로 죽는 겁니다.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독사지옥이요, 칼산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필멸 뛰게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지옥인 줄 아세요? 그게 화왕지옥이죠. 그러니 지옥이 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지옥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땐 '아이구, 저 사람들 참 이상해. 아니, 백지장 사이 같은데...' 우리가 살림하면서 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이끌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믿질 않어?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만날 아침에 일

“

내 마음과 마음 사이의 백지장 하나를 뚫을 수 있고 넘을 수 있어야

”

었고, 내가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자 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대신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해 줘도 깨우치는 거하고 죽는 거, 아픈 거, 흥 누는 거, 잡자는 거, 먹는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해 준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마음 태연하게 대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 뛰죠.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한 것이 너무 많죠.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이렇게 돼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같이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같이 해 주고, 길만 걷 대로 같이 해 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 해 주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근 거니라." 때

도 죽으면 죽는 대로 살죠.' 이라는 사람은 아주 살게 되고 괜찮은데, 살려고 바둥바둥 발버둥이 친다면 어리석은 행이 아니냐 이거죠. 해 달라면 벌써 돌아 되는 거예요. 누구더라 해 달랍니까? 내 마음이 안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구더라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가 동일하게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더불어 우리가 한생각 하는데 법이 또 세계를 그렇게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해 항상 얘기하듯 스스로 내 마음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 마음이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족한 걸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들고 남을 어찌 알았으리까, 능히 말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기 거가 돼서 스스로서 당당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퍼내서 쓸 수 있도록 진짜 믿어야 하고 진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과거 씨가 있으니 진짜 믿고 관하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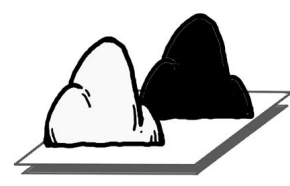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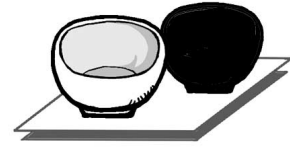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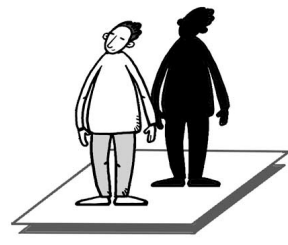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조, 아주 모하죠.

그러니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 보라 이겁니다. 한데 뭉쳐 녹이는 것이 바로 대자비와 대승 경지이며 그것을 이루어서 이 산하대지를 그냥 훌쩍 집어삼킬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고 마구니가 보이더라도 집어삼키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저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그저 부처를 아무런 방편도 없이 막 때려 부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통이가 맞아서 죽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아, 그거를 훌쩍 그 자리에 갖다 놓고는 그 물질만 없었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그런단 말입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도무지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시장바닥 같아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으니 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알았느냐. 어서 가거라. 옷 벗어 놓고,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놓고, 땅도 밟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혼자 가서 살 수 있으면 혼자 가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 까 오장 육부 속의 생명들도 다 꺼내 보라, 땅도 밟지 말고, 나무도 베지 마라, 먹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하고 최 했으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는 바로, 같이 음파를 타고 들어가 소리가 제대로 나겠구나.' 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 이 말 저 말이 들어가면 산란해서 공부를 못해요. 진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자꾸 이 말 저 말을 해서, 이리도도 갈 수 없고 저리도도 갈 수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들이고 내는 데는 오직 내면세계 바로 그 한 구멍밖에는 없다.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안해야 좌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도 힘이 없이 할 때 시공이 없는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서 오신통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데 내 마음과 마음 사이의 백지장 하나를 뚫을 수 있고 넘을 수 있어야만이 바로 상봉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바깥의 저런 은산철벽을 뚫으라 이란다면 은산철벽이 그냥 있어서 풀으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풀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의 양면에, 부와 자기가 있는 양면에 백지장 하나 사이를 넘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산철벽도, 그런 무색할 정도예요. 나의 백지장 하나 사이를 두고 부와 자가 상봉을 못할 때, 공부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봉했을 때 진짜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살림살이하면서든. 그때는 맛을 알고, 어떠한 맛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좇아서 용도에 따라서 그 맛을 볼 때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랄 수 없습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냐. 참나의 살림살이 그만하면 멧멧함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속에서 이 중생 속에서 벗어났으니 수억겁의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 스스로 한 찰나에 제도가 되는 겁니다.

어나면 먹어야 하고 쓰다듬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이러면서도 자기를 못 믿는 거야. 왜 못 믿어, 그걸? 그렇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참자기를 왜 못 믿느냐고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으로 공부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는 해의 불자입니다. 공한 도리를 어렴풋이 짐작해 나가고 있는데 근기가 약해져서인지 그 때 그 때 다가오는 역경제마 다 흔들리고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당장 발등이 타 들어가는 형국인데 불교에서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믿음도 알고 이리저리 세파에 휘둘러다 보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저에게는 지금 절실한 문제이니 한 말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는 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공해서 따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될 이 없이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만나고 고정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로 이렇게 자기 몸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은 어디 아픈 걸 더 잘 알 거예요. 기운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다가거나 또 어디가 아프다가나 이런 거는 더 잘 알죠. 탄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대처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대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어디가 어떻게 돼서 내 몸이 이런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할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아무리 관해도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주인공을 부르면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방방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요. 이름만 부르고 다녔다는 걸요. 남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하는 거 말이에요. 저 나무들이 탄 나무를 믿고 삼니까? 자기 뿌리가 끌고루 다 먹여져서 푸르르게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한다는 생각도 놓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대도 여여하게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뭘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지부러져서 죽는다 하더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병고로 인해 숨이 턱에 차올라서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이 마음을 정성스럽게 쓰고 지극한 마음으로 할 때 참 감개무량하고, 어떻게 저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눈물까지도 저 썩겨려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또 질병을 앓고 그렇게 찾아오실 때, 자손들을 둔이 없 어 학교에 못 보내고 등록금을 못 내고 울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할수록, 질병이 올수록 이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절에 가시든지 꼭 타의에서 구하시는데, 그런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절에 어떻게 가며 부처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그 육신이 집이라면 그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부처님이 계신 까닭에 그 속에 또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그 까닭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꼬달리지 마시고 믿는 것은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삼십이 합쳐서 공존하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진면목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일체 만법을 들고 낼 수 있다는 그 자체, 불성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고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자기를 못나게 생각하고 아주 값싸게 생각하고,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남한테 물어보고, 스님께한테 가서 물어보고 절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능력

함미 없이 살기에 공해서 따로 한 게 없다

29면에서 계속

이 없으니까 부적이라도 갖다 붙여야 하고 이러는 습을 가졌어요.

어려운 길에 가다가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일어 서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렸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질병이 나왔다면 그 속에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과의 업보, 유전, 그 오간지옥의 꼴을 누구나 가 면치 못하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바깥으로 고달리면 못 면합니다. 반드시 그것, 안의 주인 공에 입입해서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는 그 믿음을 진실하게 갖고 물러서지 않을 때, 비로 소 그런 그것대로 해결을 하면서 이겨야 할, 삼기 양득으로 됩니다.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체험하 면서, 또 그 감흥을 얻는다 말합니다. '아! 나한테 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단호히 이런 것을 믿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때는 선택을 쥐고 들어가 기 때문에 그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참나가 감음이 되고 부 와 자가 서로, 즉 말하자면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 때로는 일을 할 때는 부는 자식이 돼 주고 우 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은 부가 돼 주고, 자유자 재권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죠. 고거를 못만들것랄 여러분이 남편을 글방 만났다가 자식 을 만나보세요. 남편 만났을 때는, 때에 따라서 여 러 가지로 여러분은 화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딸 같아지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편 누 이도 되고 어떤 편 어머니도 되고 그렇게 변화가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멧쟁이는 뭐가 멧스러우냐 하면, 묘 법이라고 하죠. 그걸, 그 묘법은 마음에 따라서 행 도 말도 뜻도, 삼합이 한데 자동적으로 굴러가면 서 남편한테 접근을 하거든요. 자동적입니다. 한 찰나예요. 그런데 한 찰나에 말합니다. 자식을 만 나니까 글방 아내라는 게 그냥 아예 없어지고 자 동적으로 어머니라는 게 됐어요. 이렇게 묘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 그렇게 묘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기가 자각할 줄 모르고 자립할 줄 모르고, 자기 진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할 수 있 는 그러한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 생활이 그대로 심성과화하며 그대로 철화 도 될 수 있으며, 인간의 도리가 그대로 부처님 법 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동물로서 태어난 것은 마음이 그렇게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 동물입니다. 그 래서 인간 이하로 된 물건들은 우리 인간이 지배 하게 돼 있고 지배를 받는 것은 인간을 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가만 히 펼쳐 놓은 이 이치를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우 리 몸통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생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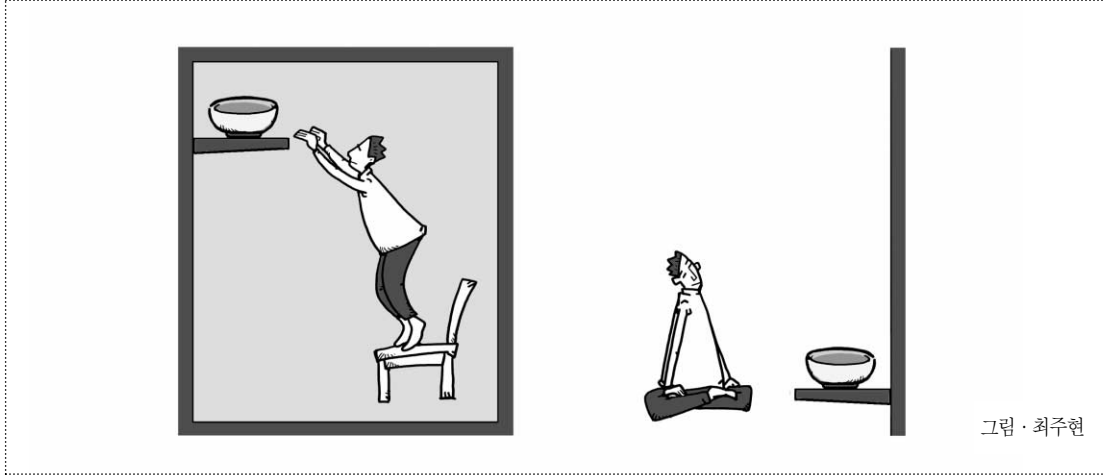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흥겹게 웃으면서 살 수 있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만날 '한번 괴로움이 있으면 거기 입입해서 놓아라. 아프면 아픈 것도 거기에 놓아라. 아픈 것이 거기서 나왔 다면 바로, 낫게 할 수도 있는 능력도 거기 있다.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가난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거 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매사 게 다 그렇다 는 것을 진짜로 아시고 눈을 흘리지들 말고 멋지 게 사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 근본 종자만은 남듯이, 남아서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다시금 점차 난자를 빌려서 다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차원이 사 차원, 오 차원, 육 차원, 칠 차원까지 이렇게 이르러야만, 이 몸 은 가만 놔두고라도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져서, 블랙홀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이 전 세계 컴퓨터 의 모든 문제도 더 성장이 되게끔 할 수 있고 수명 도 연장시킬 수 있고, 허공에 예지 있는 거를 다 끌어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 우리가 점차적 으로 길게 살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천리의 삶이 길게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만큼 되지 못했는데 벌써 물질은 다 떨어지고 아니, 에너지라고 합시 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살 수 없다면,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살겠습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여 러분! 먹을 게 말합니다.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게 선 된 위에 높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키를 키 워야 그럴 꺼내 먹죠. 그렇기 때문에 걸상이라도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낸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을 높여야, 걸상을 놓지 않고 우리가 꺼 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물질이니까, 육안으로 보

마음공부의 공덕

왜 마음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으세요?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공덕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물으셨는데, 우주와 우 리의 집인 지구와 세계가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는 대로 모두 그 수명을 연장하면서, 또 이 말 하진 것 에 우주는 모든 물질적인 그 모두를 해소시키고 그 근본만 남아서 블랙홀이라는 큰 별이 그것을 생산을 합니다. 새로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죽으면 몸통이 없어지고, 지 수화풍에서 와서 지수화풍으로 도로 돌아가지만

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말합니다. 내 몸속에서 벗 어나야,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야 대기권을 벗어나 살 수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모든 각처에 어디든 지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해서 응인이 될 수도 있고 군사로 화해서 대비대책을 할 수도 있습니 다. 어떠한 거든지, 바다라든가 산이라든가 들에 서라든가 우주에서라든가 세계의, 지구 모두 어 디든지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에도 놓다 얹다 이런 것도 없고, 길다 짧다 이런 것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문,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지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영험량도

픽미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 사람

참회하는 마음 > 갖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 > 갖는 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대로 기쁨을 받는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모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던 사후에 구원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물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중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 다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 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얼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상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져나가는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 단누비 (턱물)
- 모직누비
- 무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등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맥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물베, 셔츠

대구 고서티미널 2층 동부명주방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 P : (011)549-8130

간(肝) 이 지방간경화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용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무를 열어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재워낸 참 다슬기와 구슬참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깨끗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집된다.

다슬기 기용: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거 97기마를 넣은 뒤 원거에 물을 붓고 그 열로 다슬기가 망속에 끓어오르면 반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용을 만든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60박 80일이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